

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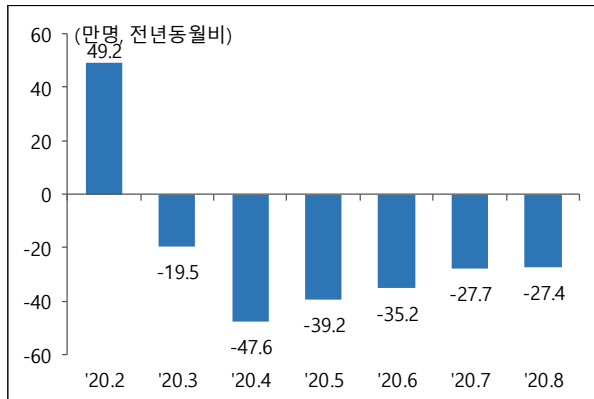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재준 (june97@kdb.co.kr)

- ◆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취업자 수가 지난 4월을 저점으로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나, 일시휴직자·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,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 고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
- ◆ 고용유지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이 필요

□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'20.3~4월 크게 감소, 이후 8월까지 감소폭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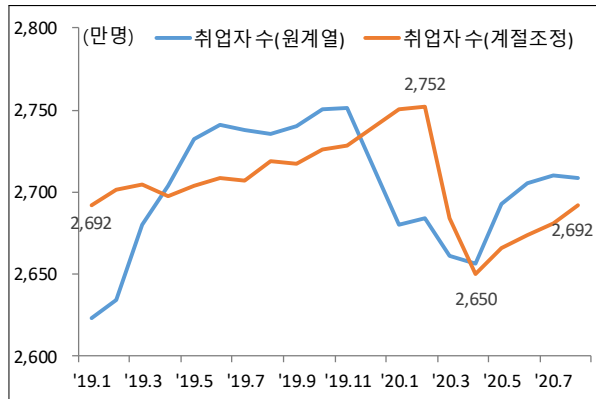
-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'20.3~4월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, 이후 8월까지 감소세 소폭 완화
-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4월 47.6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8월 27.4만명 감소로 점차 감소폭 축소
- 계절효과를 제거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를 보더라도 3~4월 감소 이후 8월까지 완만히 증가 중이나 여전히 '19년말 수준에는 미달

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증감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취업자 수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- '08년 금융위기 당시*와 비교하여 계절조정 취업자 수 감소폭을 보면, 최근 코로나19의 영향('20.8월 취업자 수가 2월 대비 60만명 감소)이 큼

* 금융위기가 '08.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으로 본격화되었으나, 한국의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'08.11월(2,379만명)까지 증가하였으며, 이후 '09.5월(2,354만명)까지 6개월간 25만명 감소

- 한편, 8월 고용통계 조사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어서* 9월에는 취업자 수 등 고용상황 다소 악화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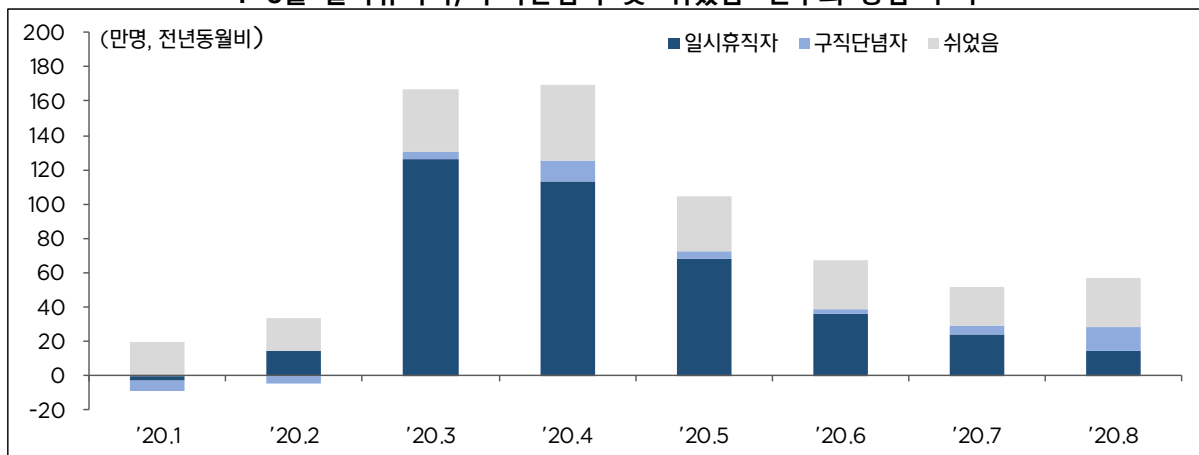
* (8월 고용동향 조사주간) 8.9~15일, (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) 8.16일 2단계로 격상, 8.30일 강화된 2단계 시행, 9.14일 2단계로 완화, (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) 8.23일 2단계로 격상

□ 일시휴직자·비경제활동인구 증가, 청년층 고용률 하락 등으로 고용회복 지연

- 통계상 취업자*로 분류되나 내용상 실업자라 할 수 있는 '일시휴직자'가 '20.8월 전년동월대비 14.3만명 증가한 84.6만명으로, 잠재적 일자리 불안계층이 증가

* ① 임금근로자(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) + ② 비임금근로자(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) + ③ 일시휴직자(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, 연가, 교육,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자)

1~8월 일시휴직자, 구직단념자 및 '쉬었음' 인구의 증감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- 또한, 실업률 계산*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**의 증가로, 8월 취업자 수 감소폭(△27.4만명)에 비해 실업자 수 증가는 소폭(+0.6만명)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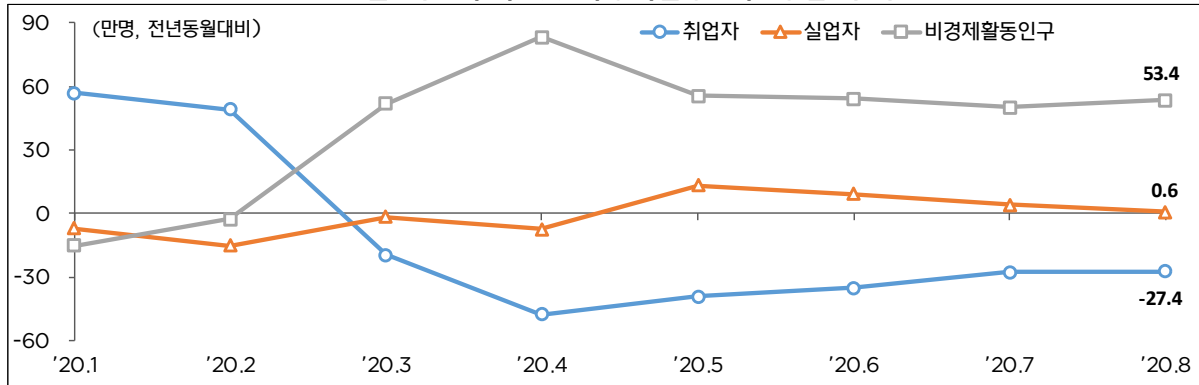
* 실업률(%) = (실업자 ÷ 경제활동인구) × 100

** 만 15세 이상의 노동가능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로, 가정주부, 학생, 연로자와 심신장애자,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됨

- 이중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은 '쉬었음'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9만명 증가한 246.2만명, '구직단념자'*는 13.9만명 증가한 68.2만명으로, 실업 상태가 만성화될 소지가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

*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,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

1~8월 취업자 수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- 한편,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20대 청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이 지속
 - 8월 20대 취업자 수*는 전년동월대비 13.9만명 감소하였고, 20대 실업률**은 7.7%로 전체 실업률(3.1%)의 두 배 이상
 - * 20대 취업자 증감(만명) : ('20.2) △2.5 (3) △17.6 (4) △15.9 (5) △13.4 (6) △15.1 (7) △16.5 (8) △13.9
 - ** 전체 실업률(%) : ('20.2) 4.1 (3) 4.2 (4) 4.2 (5) 4.5 (6) 4.3 (7) 4.0 (8) 3.1
 - 20대 실업률(%) : ('20.2) 9.0 (3) 9.7 (4) 9.1 (5) 10.3 (6) 11.0 (7) 9.7 (8) 7.7
 - 8월 20대 고용률(56.4%)은 전년동월대비 2.2%p 하락하며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
 - * 고용률 증감(%p) : (20대) △2.2 (30대) △1.6 (40대) △1.7 (50대) △0.8 (60대 이상) +0.9

□ 현재 진행 중인 고용유지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,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장기적 시각 필요

- 지속적인 고용유지 정책으로 고용시장 충격 완화에 주력
 - 고용유지지원금 지원,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등 현재의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
-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 지원 지속
 - 코로나19 여파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* 등을 활용하는 한편, 유망 성장동력산업 발전 촉진과 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 등 일자리 수를 늘리도록 유도
 - * 정부가 '20.7.14일 발표한 정책으로, 디지털뉴딜, 그린뉴딜, 안전망 강화를 큰 축으로 하여 '22년까지 88만개, '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
 - 단순·한시적 일자리를 넘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,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지속 추진